

2021. 1. 26.(화)

전략 기획 팀

2021년 안산지역 제조업체 설 명 절 실 태 조 사

목 차

I. 조사 개요	2
II. 조사 결과	3
1. 설 명절 휴무 계획	3
2. 설 상여금 지급 계획	4
3. 체감경기	5
4. 고용환경	6
5. 지원시책	7

I | **조사 개요**

조사 목적

- 안산지역 제조업체의 설 명절 휴무계획 및 기타 경영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기업경영에 필요한 지원방안 모색 및 개별기업의 참고자료로 활용

분석 대상

- 안산지역 제조업체

조사 기간

- 2021년 1월 12일(화) ~ 1월 22일(금), 11일간

조사 방법

- 팩스, 이메일 조사

조사 내용

- 설 명절 휴무 계획
- 상여금 지급 계획
- 2021년 전년 대비 체감경기
- 2021년 고용환경(주 52시간 근무제)
- 2021년 희망 지원시책

응답 현황

구 분		응 답 수	응답비율
기업 규모	50인 미만	53개사	51.5%
	50인 이상 ~ 100인 미만	21개사	20.4%
	100인 이상	29개사	28.1%
합 계		103개사	100.0%

II 조사 결과

1. 설 명절 휴무 계획

□ 설 명절 휴무기간

○ 안산지역 제조업체의 평균 설 명절 휴무기간은 4.2일로 나타남.

* 설 명절 기간: 2021. 2. 11.(목) ~ 14.(일), 4일(토·일요일 포함)

○ 안산지역 제조업체의 84.4%가 설 명절 휴무기간을 4일로 계획한다고 응답함.

○ 5일 이상 추가 휴무를 계획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14.6%로 나타남.

- 추가 휴무의 사유로는 ‘취업규칙 및 내부규정에 의거 실시(50.0%)’가 가장 많았으며, 그 외 응답은 ‘연차휴가 소진(21.4%)’, ‘근로자 편의(14.3%)’, ‘생산량 감소(7.1%)’, ‘기타(7.1%)’ 순

기업 규모별 설 명절 휴무기간

구 분	3일	4일	5일	6일	9일
전 체	1.0%	84.5%	12.6%	1.0%	1.0%
50인 미만	1.9%	81.1%	17.0%	-	-
50인 이상 ~ 100인 미만	-	90.5%	-	4.8%	4.8%
100인 이상	-	86.2%	13.8%	-	-

※ 비율 계산상 ±0.1%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2. 설 상여금 지급 계획

□ 설 상여금 지급 형태

- 안산지역 제조업체 중 설 상여금 지급 예정인 기업은 44.6%로 전년 대비 6.7%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 - 정기상여금 지급 예정인 기업은 29.1%로 전년 대비 5.6%p 감소
 - 특별상여금 지급 예정인 기업은 15.5%로 전년 대비 1.1%p 감소
 - 상여금 대신 선물 지급 예정인 기업은 42.7%, 상여금과 선물 모두 지급 예정인 기업은 20.4%

안산지역 제조업체 설 상여금 지급 형태

정기상여금			특별상여금			선물	미지급
'20년	'21년	증감률	'20년	'21년	증감률		
34.7%	29.1%	-5.6%p	16.7%	15.5%	-1.1%p	42.7%	12.6%

※ 선물 지급: 상여금 중복 지급 기업(21개사) 제외
 ※ 비율 계산상 ±0.1%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- 안산지역 제조업체 중 설 상여금 및 선물 미지급 예정인 기업은 12.6%로 나타남.
 - 미지급의 사유로는 ‘연봉제 실시(48.9%)’가 가장 많았으며, 그 외 응답은 ‘지급규정 없음(29.8%)’, ‘경영 악화(17.0%)’, ‘기타(4.3%)’ 순

□ 설 특별상여금 지급 수준

- 설 특별상여금 지급 예정인 기업(15.5%)의 37.5%가 설 특별상여금을 ‘일정금액’ 지급할 계획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함.
 - ‘일정금액’의 경우 지급 수준은 평균 491,667원

안산지역 제조업체 설 특별상여금 지급 수준

기본급의 50% 미만	기본급의 50% 이상	기본급의 100% 이상	일정금액
25.0%	18.8%	18.8%	37.5%

※ 비율 계산상 ±0.1%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- 설 선물 지급 예정인 기업(63.1%)의 선물 지급 수준은 평균 57,825원으로 나타남.

* 상여금 중복 지급 기업(21개사) 포함

3. 체감경기

□ 전년 대비 체감경기

○ 안산지역 제조업체의 65.0%가 전년 대비 체감경기를 ‘악화’ 될 것으로 가장 많이 응답함.(‘매우 악화(23.3%)’ + ‘다소 악화(41.7%)’)

* 전년도 설 명절 기간: '20. 1. 24. ~ 27.

- 50인 미만 및 100인 이상 기업에서는 ‘다소 악화’ 가 각각 49.1%, 44.8%로 가장 높게 조사
-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에서는 ‘지난해와 유사(42.9%)’ 가 가장 높게 조사

기업 규모별 체감경기

구 분	매우 악화	다소 악화	지난해와 유사	다소 호전	매우 호전
전 체	23.3%	41.7%	28.2%	6.8%	-
50인 미만	24.5%	49.1%	22.6%	3.8%	-
50인 이상 ~ 100인 미만	28.6%	19.0%	42.9%	9.5%	-
100인 이상	17.2%	44.8%	27.6%	10.3%	-

※ 비율 계산상 ±0.1%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○ 전년 대비 올해 체감경기를 ‘악화’ 라고 응답한 기업(65.0%)의 44.1%가 경기 악화 사유를 ‘내수 침체’ 로 가장 많이 응답함.

- ‘기타(5.9%)’ :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, 동종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

기업 규모별 체감경기 악화 사유

구 분	내수 침체	수출 감소	환율	고용환경 변화	기업 규제	기타
전 체	44.1%	22.9%	6.8%	11.0%	9.3%	5.9%
50인 미만	47.1%	22.9%	7.1%	7.1%	12.9%	2.9%
50인 이상 ~ 100인 미만	42.1%	36.8%	5.3%	10.5%	-	5.3%
100인 이상	37.9%	13.8%	6.9%	20.7%	6.9%	13.8%

※ 복수 응답 포함

※ 비율 계산상 ±0.1%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4. 고용환경

□ 「주 52시간 근무제」 확대 시행에 따른 영향

- 안산지역 제조업체의 72.8%가 「주 52시간 근무제」 확대 시행에 따른 영향을 ‘부정적’ 으로 가장 많이 응답함.

(‘매우 부정적(26.2%)’ + ‘다소 부정적(46.6%)’)

* 2021년 1월부터 50인 이상, 7월부터 5인 이상 기업에 「주 52시간 근무제」 확대 적용
(300인 이상 기업은 2018년 7월부터 시행 중)

기업 규모별 「주 52시간 근무제」 영향

구 분	매우 부정적	다소 부정적	영향 미비	다소 긍정적	매우 긍정적
전 체	26.2%	46.6%	24.3%	2.9%	-
50인 미만	26.4%	47.2%	24.5%	1.9%	-
50인 이상 ~ 100인 미만	33.3%	38.1%	28.6%	-	-
100인 이상	20.7%	51.7%	20.7%	6.9%	-

※ 비율 계산상 ±0.1%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□ 「주 52시간 근무제」 확대 시행에 따른 대책

- 안산지역 제조업체에서 「주 52시간 근무제」 확대 시행에 따른 대책을 ‘유연근무제 도입(30.0%)’ 으로 가장 많이 응답함.

-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‘대책 없음(37.0%)’ 이 가장 높게 조사
- 50인 이상 100인 미만 및 100인 이상 기업에서는 ‘유연근무제 도입’ 이 각각 41.7%, 37.5%로 가장 높게 조사

기업 규모별 「주 52시간 근무제」 대책

구 분	대책 없음	유연근무제 도입	특별연장근로 신청	인력 총원	기타
전 체	29.1%	30.0%	11.8%	23.6%	5.5%
50인 미만	37.0%	20.4%	14.8%	20.4%	7.4%
50인 이상 ~ 100인 미만	20.8%	41.7%	8.3%	25.0%	4.2%
100인 이상	21.9%	37.5%	9.4%	28.1%	3.1%

※ 복수 응답 포함

※ 비율 계산상 ±0.1%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5. 지원시책

□ 2021년도 희망 지원시책

○ 안산지역 제조업체에서 올해 경영활동에 있어 가장 필요한 지원시책을 ‘세제·세정 지원(31.3%)’ 으로 가장 많이 응답함.

-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‘세제·세정 지원(35.1%)’ 으로 가장 높게 조사
-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에서는 ‘경영안정 자금(34.8%)’ 으로 가장 높게 조사
- 100인 이상 기업에서는 ‘인력 지원(34.4%)’ 으로 가장 높게 조사

기업 규모별 희망 지원시책

구 분	경영안정 자금	판로 지원	경영 컨설팅	인력 지원	세제·세정 지원	기타
전 체	25.0%	9.8%	3.6%	26.8%	31.3%	3.6%
50인 미만	26.3%	12.3%	1.8%	21.1%	35.1%	3.5%
50인 이상 ~ 100인 미만	34.8%	4.3%	0.0%	30.4%	26.1%	4.3%
100인 이상	15.6%	9.4%	9.4%	34.4%	28.1%	3.1%

※ 복수 응답 포함

※ 비율 계산상 ±0.1% 오차가 있을 수 있음.